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Abusive Experience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한양대학교

강 사 김 은 경*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 수 이 정 숙**

Hanyang Univ.

Lecturer : Kim, Eun-Kyung

Dep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

Professor : Lee, Jung-Sook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oll of various abusive factors on suicide thoughts.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negligenc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s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abuse, were examined on suicide ideation.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were also investigated. To achieve these specific objectives, subordinate dimensions of abuse such as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were measured for 277 male and 275 female students from Seoul middle schools using a measurement tool.

Specifically, experiences of being abused and neglected, the level of suicide thoughts using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the level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using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PFQ-2), and schoolmate relationships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Analysis of collected data revealed that while suicide though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abuse and shame-pronenes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thoughts and friendships. In particular, negligenc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e ideation, while emotional abuse had the greatest effect on suicide ideation.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partially mediated abuse and suicide though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of factors related to suicide thoughts. In particular, 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have been highlighted.

▲주요어(Key Words) : 자살생각(suicide thoughts), 학대(abuse), 수치심(shame-proneness), 친구관계(friend relationships)

* 주 저 자 : 김은경 (E-mail : enkkim@gmail.com)

** 교신저자 : 이정숙 (E-mail : ljs1994@hanyang.ac.kr)

I. 서 론

청소년 자살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1997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으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10대에서는 3위, 20대에서는 2위를 차지했던 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위, 그리고 20대에서는 1위로 뛰어올랐다(통계청, 1997; 2004; 2005; 2006a; 2006b). 또 조성진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30.7%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고 실제 자살 시도율도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한 해 동안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인한 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사망자수는 664명으로, 하루 평균 1.8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6b). 가족구성원이자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이처럼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thoughts)과 자살시도(suicide attempts), 그리고 실제 완결된 자살(completed suicide)의 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land & Zigler, 1993). 이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은 자살생각으로, 이는 삶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어떤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서 죽음을 계획하거나 죽는 것을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상태를 말한다.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그리고 실제 자살성공의 비율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Garland & Zigler, 1993),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살의도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외부로 드러난 자살 의사는 높은 자살위험도에 관련시켜서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신민섭, 1992). 즉, 자살생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살 생각으로 임상 장면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16~30%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고도 있다(Kovacs et al., 1993).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Beck et al., 1979), 또한 우울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원, 가족관계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지표라는 점에서(김교현, 2004; 이지연, 2005; 전영주 · 이숙현, 2000), 자살실행의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들의 자살생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살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성과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순간적인 오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자살이 충동적으로 감행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자살 시도로 인한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자살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Fremouw et al., 1990). 청소년들은 명확한 자살의사 없이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투명하고 충동적인 자살시도가 성공하는 경우 그것은 당사자 개인의 불행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에 큰 상처가 된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급격한 신체적 변화 속에서 겪는 정서적 혼란과 인지적 심리적 발달의 부조화는 우울과 불안, 좌절감, 공격성 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해지는 청소년들은 자살충동에 쉽게 동요된다. 그래서 성인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질환과 덜 관련되며(Crumley, 1982), 평소 잘 기능하던 경우에도 스트레스나 보복의 동기에 의해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Glaser, 1981).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기보다는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소한 갈등에 대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충동적 경향이 자살 관련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박광배 · 신민섭, 1990; Brent, 1987).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자살은 실제 죽음에 이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도피의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석재호, 1979).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살시도 1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보고(Hawton et al., 1982)는, 청소년 자살의 최종적인 목표가 죽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나 구조 요청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예방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자살시도 이전에 표출되는 자살생각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을 막고 자살에 관련된 심리적 역동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Brent et al., 1993; Shaffer et al., 1996).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살생각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일종의 호소이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라고 본다면(석재호, 1979),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즉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나 시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변인이 양육환경이다. 자살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나 정체감을 혼란시킬 정도의 좌절, 그리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해서 보이는 마지막 자기 표현이라고 볼 때, 청소년이 그런 수준의 심각한 좌절과 고통에 처하게 된 원인은 가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학대 및 강압적 혹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촉발하는 요인임을 밝혀내고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관련하여 빈약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나 가족불화, 부적절한 모자관계, 돌봄의 결여 및 학대와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으며(Adam et al., 1994; Hollis, 1996), Gibb 등(2001)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

(Blum et al., 1992; Borowsky et al., 1999)은 다른 학대 요인보다도 특히 신체적 학대가 자살생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Grilo 등(1999)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Nilsen과 Conner(2002)는 아동기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Silverman et al., 1996; Kaplan et al., 1999)에서도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와 자살사고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영주(2001)는 부정적 양육경험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최태산(1997)은 부모 훈육의 정당성이 남자비행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임명원의 연구(1998)에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나 처벌의 정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밝힌 박경(2005)의 연구를 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및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방임과 정서적 학대,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대받은 경험에 의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받은 경험이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악화시켜서 친구관계에서 충분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수치심이나 친구관계를 매개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수치심을 생각해 보면, 수치심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면서 타인의 눈으로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한다(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은 죄책감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적인 정서로서, 최근 들어서 특히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보다 덜 해로운(전철은, 2002; Dearing et al., 2005) 반면에,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수치심은 우울, 섭식장애, 알콜중독, 자살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ndrews et al., 2002; Cook, 1988; Dearing et al., 2005; Ghatavi et al., 2002; Lewis, 1987; Sanftner et al., 1995).

특히 학대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적응 문제에 관련하여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전철은, 2002; Andrews et al., 2000; Feiring et al., 2000; Street & Arias, 2001), Andrews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복종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적인 복종은 희생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결국 이러한 수치심이 다양한 병리적 증상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Feiring et al., 2000)에 의하면 학대에 대해 자기비난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다고 한다. Street와 Arias(2001)의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심리적인 학대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전철은(2002)의 연구를 보면 수치심은 심리적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곧장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학대 경험에 의해 증가된 수치심에 의해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다른 매개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애착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받던 지지와 인정을 또래관계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게 된다. 고민이 생겼을 때에도 부모와 의논하겠다는 경우보다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정도로 청소년의 또래의존도는 높다(박경애 등, 1993).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하여 홍나미(1998)는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고립을 초래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Cole 등(1992)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빈약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Kandel, Raveis와 Davies(1991)는 또래와의 상호관계 부족이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생각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자살시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Kaltiala-Heino et al., 1999; Manson et al., 1989; Prinstein et al., 2000; Stewart et al., 1999; Tomori, 1999). 또 친구관계에 대한 애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정숙(2006)에 따르면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대해 갖는 중재나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다룬 박경의 연구(2005)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대와 자살사고 간의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친구지지의 역할을 연구한 정영주·정영숙(2007)에 의하면, 친구지지는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고생의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연구한 박경(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중에서 가족지지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친구관계나 또래지지의 중재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들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각종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하여 완충하는지를 살펴본 김순규(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각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다루었을 뿐, 친구지지는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친구지지가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김순규의 같은 연구(2008)에서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자살관련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다. 정영주(2006)는 우울과 인지적 와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지원이 갖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친구 지원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또한 친구와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못 느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수치심과 친구관계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수치심이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수치심이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와 수치심,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친구관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시내 3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청소년의 자살율이 15세경부터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통계청, 2006b)를 반영한 것이다. 즉, 높은 자살율을 보이기 시작하는 15세 전후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이 나타나는 원인을 연구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552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14.55세($SD=.79$)였고, 남학생은 277명(50.2%), 여학생은 275명(49.8%)이었다. 가족구조에 관련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이혼, 별거하거나 재혼한 사례가 45명(8.2%)이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가 507명(91.8%)이었다. 또 부모학력을 보면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이 42.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39.1%, 대학원 졸업이 9.2%, 초·중학교 졸업이 6.2%, 그리고 전문대 졸업이 3.3% 순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31.0%, 초·중학교 졸업이 6.3%, 대학원 졸업이 3.3%, 전문대 졸업이 2.5%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자살생각 척도

자살생각의 정도와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등(1979)에 의해 개발된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신민섭 등(1990)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자살생각척도를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3점 척도로 된 19문항의 척도로서 임상장면에서 임상가가 면접을 통하여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피검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민섭 등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5점 척도의 자기보고 질문지 형식으로 자살의도와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내용은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 해봤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죽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등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932로 나타났다.

2) 학대경험 척도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척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김현수(1997)의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1문항에 방임 척도, 신체적

학대 척도, 정서적 학대 척도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척도는 총 7문항으로서 안전관리 소홀, 의식주관리 소홀, 건강관리 소홀, 비행의 방조, 애정의 소홀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적 학대 척도는 7문항으로서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 학대, 상해의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 습관적 구타, 동기상 혼욕차원의 체벌과 뚜렷이 구별되는 처벌 및 폭력 행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학대 척도 역시 총 7문항이며, 모욕적 행동에 관한 문항, 차별이나 편애에 관한 문항,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각각의 문항에 관하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없었다', '일 년에 한두 번', '3, 4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으로 구성된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방임이 .716, 신체적 학대가 .873, 정서적 학대가 .862, 전체 학대는 .894로 나타났다.

3) 수치심 척도

수치심 척도는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PFQ-2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중온(1999)의 개인느낌 질문지에서 수치심 관련 10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련된 정동적인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으로, '당황스럽게 느낀다',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등이 포함된다.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의식' 등 용어는 따로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1로 나타났다.

4) 친구관계 척도

친구관계는 유윤희(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검사도구 중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터놓고 이야기할 학교 친구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70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3개 중학교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교사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는 582명이었으나, 이 중 무작위로 응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55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학대와 수치심,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대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아동기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자살생각은 방임($r=.320$, $p<.01$), 신체적 학대($r=.451$, $p<.01$), 정서적 학대($r=.517$, $p<.01$), 수치심($r=.54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수치심 및 정서적 학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데 반해서 친구관계($r=-.348$,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수치심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의 하위요인인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자살생각($r=.320\sim.517$, $p<.01$) 및 수치심($r=.311\sim.42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학대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과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대경험과 친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친구관계와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서($r=.170\sim.198$, $p<.01$), 방임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경우 친구관계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상관은 높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아동기 학대경험이 높아지면 수치심과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학대, 수치심, 자살생각이 증가할 때 또래관계 만족도를 나타내는 친구관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1	2	3	4	5	6
1 방입	1					
2 신체적학대	.388**	1				
3 정서적학대	.419**	.686**	1			
4 수치심	.319**	.311**	.421**	1		
5 친구관계	-.170**	-.196**	-.198**	-.344**	1	
6 자살생각	.320**	.451**	.517**	.546**	-.348**	1

**p<.01

<표 2> 학대경험 및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t	R ²	F
학대경험 방 입	.383	.106	2.655**		
신체적 학대	.626	.162	3.241***	.294	75.910***
정서적 학대	1.057	.361	7.122***		
수치심	.336	.435	11.324***	.189	128.244***
친구관계	-.070	-.230	-5.542***	.053	30.711***

p<.01 *p<.001

다음으로,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치심, 친구관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대경험의 하위변인인 방입,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방입 ($B=.383, p<.01$), 신체적 학대($B=.626, p<.001$), 정서적 학대 ($B=1.057, p<.001$)가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에서 예언변인의 설명력은 29.4%였다. 자살생각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정서적 학대 ($\beta =.361, p<.0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beta =.162, p<.001$), 방입($\beta =.106, p<.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치심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336,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수치심의 설명력은 18.9%였다. 친구관계도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070,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관계의 설명력은 5.3%였다.

2. 아동기 학대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partial mediating),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의 매개 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수치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학대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 =.435,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학대경험은 정적인 유의한 영향($\beta =.5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수치심을 추가하여 학대경험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학대경험의 영향력($\beta =.363,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치심에 대하여도 유의한 영향력($\beta =.388,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은 수치심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대받았다고 자각할지라도 수치심이 낮아지면 자살생각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대경험은 자살생각 변량의 28.2%를 설명하였고, 학대경

<표 3> 아동기 학대경험이 수치심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ΔR ²	β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학대경험 → 수치심	.189	.435***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282	.531***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수치심 → 자살생각	.404	.363*** .388***

***p<.001

<표 4> 아동기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ΔR ²	β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학대경험 → 친구관계	.053	-.230***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282	.531***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대경험 → 자살생각 친구관계 → 자살생각	.336	.476*** -.239***

***p<.001

험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40.4%를 설명하였다.

자살생각 변량의 28.2%를 설명하였고, 학대경험과 친구관계를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33.6%를 설명하였다.

3. 아동기 학대경험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친구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학대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 = -.230, p < .001$)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도 학대경험은 정적인 유의한 영향($\beta = .53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를 추가하여 학대경험과 함께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학대경험의 영향력($\beta = .476, p < .001$)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 대하여도 유의한 영향력($\beta = -.239,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은 친구관계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대받으면 친구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나빠진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대경험은

IV. 논 의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 등을 통해 알아보고, 특히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로 아동기 학대경험, 수치심,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대경험과 수치심, 친구관계는 모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대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9.4%였다. 즉,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 현재의 어떤 문제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 죽음을 계획하거나 죽는 것을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살생각의 정도를 높이는 데에 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양육자가 아동을 위협, 무시하거나 증오를 보이거나, 차별, 욕설을 함으로써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서적인 학대(이대근, 2001; 이소희, 2002)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나, 몸이나 도구 등에 의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에 가하는 학대보다 더 심하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님이 '식사 때가 되었는데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는' 방임당한 경험이나, '손으로 나의 팔, 다리나 머리, 뺨 등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보다 더욱더 강하게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은 '심하게 꾸짖거나, 위협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정서적 학대인 것이다. 설령 자녀를 때리지 않고 방임하지도 않고 키운다고 해도, 말이나 태도로 정서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살생각을 키울 수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준다.

또한 수치심과 친구관계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의 정도가 커지면,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거나 죽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친구에 대해 호의적이고 또래에게서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서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자살충동이나 자살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받은 경험이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치심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대경험과 수치심을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40.4%를 설명하고 있다.

수치심은 자신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것이며, 그러한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자신이 매우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이처럼 자신을 부적절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수행되었던 적지 않은 연구들(Andrews & Hunter, 1997; Feiring et al., 2000)에서는 학대가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학대경험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의식정서인 수치심을 매개로 해서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전철은(2002)이나 Street와 Arias(2001)도 학대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면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학대받은 경우, 그러한 학대경험이 '현재의 문제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계획하거나 고려해보는(Goldney et al., 1989)'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혹은 학대경험이 자신을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서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수치심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수치심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서 수치심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매개효과 의미는 치료적 개입의 의의도 지니는데, 학대적 환경이라는 요인이 개인적인 힘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적인 것이며, 특히 학대 경험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인 데 비해서 현재 느끼는 수치심 정도는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의 매개경로를 확인한 것은 곧 학대가 있더라도 수치심이 낮아지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학대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정복지 차원의 개입과 더불어서 수치심을 낮추는 심리치료적 개입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생각을 촉발시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친구관계가 나빠지고, 이렇듯 친구들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친구관계는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대경험과 친구관계를 포함한 모델은 자살생각의 33.6%를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친구관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며(유안진 등, 2005), 더불어서 친구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시기이다(장휘숙, 1997).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친구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고 정서적 안정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경우, 이러한 학대경험은 이후의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친구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학대받은 청소년이 친구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만

족도를 보이는 한 가지 원인은 학대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기 학대경험은 정서인식이나 인지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의 정서나 의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김은경, 2008). 상대의 정서와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나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불안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할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여 결국 극단적인 도피로서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관계가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학대받으며 자란 청소년이 자살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개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라고 할 만큼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그만큼 큰 내적 동요를 겪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기에는 문제가 잠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겪는 불안과 갈등은 더욱 클 것이다. 이때, 각종 위험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지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김순규, 2008)가 있으나, 학대받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는 학대적인 부모나 양육자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대받은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친구지거나 교사지지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은 허물없이 지내는 또래에게서 올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의논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부모나 교사보다는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박경애 등, 1993). 이런 점에서 아동기에 학대받으며 자란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이라는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친구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문제에 개입할 때 친구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또래상담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상황을 구조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아동기의 학대경험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현재의 친구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래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살생각으로 빠져드는 위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학대경험이 이러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친구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으면 이로 인해 수치심이 높아지고 친구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받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감소시키고 친구관계를 지원해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는 만큼,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살생각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인구통계를 보면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위이고 20대의 사망원인 1위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4; 2005; 2006a; 2006b). 또한 10대와 20대는 발달과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의 자살생각 정도나 그 배경, 이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김운삼(1997). 청소년의 자살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경(2008). 학대받은 청소년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박경(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8.

박경(2007). 여고생의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여성건강, 8(1)**, 1-21.

박경애 · 구분용 · 김원중 · 송종용(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광배 · 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박병금(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석재호(1979). 자살. **인간과학**, **3(10)**, 39-50.
- 신민섭(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심종은(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 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대근(2001). **아동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 이소희(2002). **아동복지론**. 서울: 양지.
- 이지연(2005).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명원(1998). 심리적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97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전영주 · 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전철은(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심리적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주(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적 분석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주 · 정영숙(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조성진 · 전홍진 · 김장규 · 서동우 · 김선옥 · 함봉진 · 서동혁 · 정선주 · 조맹제(2002). 중 ·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형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 최태산(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1997). 1997년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4). 2004년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5). 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6a). 2006년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6b). 2006년 청소년통계.
- 홍나미(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 K. S., Keller, A., West, M., Larose, S., & Goszer, L. B.(1994). Parental representation in suicidal adolescents: A controlled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8*, 418-425.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 Andrews, B., & Hunter, E.(1997). Shame, early abuse, and course of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a preliminary study. *Cognition and Emotion*, *11*, 373-381.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 29-42.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lum, R. W., Harmon, B., Harris, L., Bergeisen, L., & Resnick, M. D.(1992).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1644.
- Borowsky, I. W., Resnick, M. D., Ireland, M., & Blum, R. W.(1999). Suicide attempts among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yout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3(6)*, 573-80.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Friend, A., Roth, C., Schweers, J., Balach, L., & Baugher, M.(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3)*, 521-529.
-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00).

- CDC Surveillance Summarie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1999.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49(SS05), 1-96.
- Cole, D. E., Protinsky, H. O., & Cross, L. H.(199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813-818.
- Cook, D. R.(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rumley, F.(1982). The adolescent suicide attempt: A cardinal symptom of a serious psychiatric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6, 158-165.
- Dearing, R. L., Stuewig, J., & Tangney, J. P.(2005). On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shame from guilt: Relations to problematic alcohol and drug use. *Addictive behaviors*, 30(7).
- Feiring, C., & Furman, W.(2000). When love is just a four letter word: Victimiz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Maltreatment*, 5(4), 291-296.
- Fergusson, D. M., & Lynskey, M. T.(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3), 281-292.
- Fremouw, W. J., de Perczel, M., & Ellis, T.(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Toronto: Pergamon Press.
- Garland, A. F., & Ziegler, E.(1993).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Current research and social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2), 169-182
- Garnefski, N., & Diekstra, R. F. W.(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20(2), 201-208.
- Ghatavi, K., Nicolson, R., MacDonald, C., Osher, S., & Levitt, A.(2002). Defining guilt in depression: A comparison of subjects with major depression, chronic medical illness and healthy control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8, 307-315.
- Gibb, B. E., Alloy, L. B., Abramson, L. Y., Rose, D. T., Whitehouse, W. G., & Hogan, M. E.(2001). Childhood maltreatment and college students' current suicidal ideation: A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405-415.
- Glaser, K.(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 Goldney, R. D.,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Smith S.(1989). Suicidal ideation in a young adult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9, 481-489.
- Gould, M. S., Shaffer, D., Fisher, P., & Garfinkel, R.(1998). Separation/divorce and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2), 155-163.
- Harder, D. W., & Lewis, S. J.(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pp. 89-11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wton, K., O'Grady, J., Osborn, M., & Cole, D.(1982). Adolescents who take overdoses: Their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contacts with helping agenci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118-123.
- Hollis, C.(1996).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622-630.
- Kaltiala-Heino, R., Rimpela, M., Marttunen, M., Rimpela, A., & Rantanen, P.(1999).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rittish Medical Journal*, 319(7206), 348-351.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9.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Mandel, F., Weiner, M., & LaBruna, V.(1999). Adolescent physical abuse and risk for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976-988.
- Kovacs, M., Goldston, D., & Gatsonis, C.(1993). Suicidal behaviors and childhood-onset depressive disorder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8-20.
- Lewis, H. B.(1987). Introduction: shame-the "Sleeper" in psychopathology. In H. B. Lewis (Eds.),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nson, S. M., Beals, J., Dick, R. W., & Duclos, C. W.(1989).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Indian adolescents at a boarding school." *Public Health Reports*, 104(6), 609-614.
- Martin, G., & Waite, S.(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

- navica*, 89, 246-254.
- Marttunen, M. J., Aro, H. M., & Lönqvist, J. K.(1993). Precipitant stressors in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6), 1178-1183.
- Nilsen, W. J., & Conner, K. R.(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49-62.
- Prinstein, M. J., Boergers, J., Spirito, A., Little, T. D., & Grapentine, W. L.(2000). Peer functioning, family dysfunc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 risk factor model for adolescent inpatients' suicidal ideation sever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392-405.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5-324.
- Shaffer, D., Gould, M. S., Fisher, P., Trautman, P., Moreau, D., Kleinman, M., & Flory, M.(1996).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339-348
- Silverman, A. B., Reinherz, H. Z., & Giaconia, R. M.(1996). The long-term sequelae of child and adolescent abus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0(8), 709-723.
- Stewart, S. M., Lam, T. H., Betson, C., & Chung, S. F.(1999). Suicide ide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ed mood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in Hong Kong.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9(3), 227-240.
- Street, A. E., & Arias, I.(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Tomori, M.(1999).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Slovenia.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Europe* (Eds H. Remschmidt & H. Van Engeland), pp. 313-328. N.Y.: Springer.
- Wichstrom, L.(2000).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5), 603-610.
- Wells, M., & Jones, R. A.(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접수일 : 2008년 09월 14일

심사일 : 2008년 10월 02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7일